

| | |
|--------------------|--|
| 저자 (Authors) | 하정룡 |
| 출처 (Source) | 사학연구 ,(55.56) , 1998.9, 59-74(16 pages) 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55.56) , 1998.9, 59-74(16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한국사학회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03251 |
| APA Style | 하정룡 (1998). '삼국유사' 최고본의 간행시기-학산조종업소장고판본을 통한 접근-. 사학연구(55.56), 59-74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28 09:50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最高本の 刊行時期 - 鶴山趙鍾業所藏古板本을 통한 接近 -

河 廷 龍 *

- | | |
|--------------|----------------|
| 머리말 | Ⅲ. 壬申本の 舊刻本 問題 |
| I. 趙鍾業本の 內容 | Ⅳ. 初刊時期의 上下限 |
| Ⅱ. 「卷第二」의 校勘 | 맺음말 |

머리말

한국고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운데 하나인 『三國遺事』는¹⁾ 우리나라 토착 신앙에 대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²⁾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역사·불교·사상·민속·사회·국어학 등 제 방면에 걸친 방대한 사실을 전하는 서적을 꼽으라면 당연히 『三國遺事』를 거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三國遺事』를³⁾ 보면 많은 문제점이 엿보인다.

서술상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나 체제상의 혼란, 인용전거를 밝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서 일관성을 결여한 점⁴⁾을 비롯하여 序文이나 跋文이 없을 뿐만 아니라 禪僧인 著者가 禪宗의 수용에 대한 자료를 누락시킨 점⁵⁾ 등은 과연 『三國遺事』가 一然스님의 단독작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제기까지 가능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강사.

- 1) 金貞培, 1987, 「檀君記事와 관련된 「古記」의 性格」,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2) 崔光植,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35쪽.
- 3) 崔南善, 1927, 「三國遺事解題」, 『啓明』 18, 啓明俱樂部 ; 1943, 『新訂三國遺事』, 三中央 ; 1954, 『增補三國遺事』, 民衆書館.
- 4) 金相鉉, 1993, 「三國遺事의 歷史方法論的 考察」, 『東洋學』 23,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84-187쪽.
- 5) 許興植, 1986, 「宗派의 起源에 대한 試論」,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117~118쪽.

하게 한다. 그러므로 근래 一然스님이 仁興社에 있던 그의 문도들을 대거 동원하여 만든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는 견해가6) 제기된 한편으로 『三國遺事』의 「王曆第一」이 諸篇目과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견해와7) 그리고 『三國遺事』에 나타나는 避諱의 용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8) 그리고 「王曆第一」의 編纂時期에 대한 고찰을9) 통해서 그러한 견해들은 수정보완되고 있다.

이와 같은 『三國遺事』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三國遺事』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다름이 아니라 『三國遺事』의 原文을 정확히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三國遺事』의 가치와 校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미 필자는 『三國遺事』를 譯註의 과정에서10) 校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존 三國遺事의 諸板本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과11) 함께 「神呪第六」을 중심으로 校勘을 시행한 바 있으며12), 이를 전체 篇目으로 확대하고13) 그 용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색인을 만든 바 있다.14) 그 결과 古板本の 善本으로서의 중요성을 보다 극명하게 인식하게 되어 鶴山李仁榮 舊藏古板本과 그 筆寫本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을 한 바 있다.15) 그러므로 본고는 그러한 일련의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앞선 時期의 古板本으로 추정된 바 있는 鶴山趙鍾業所藏古板本(이하 趙鍾業本) 『三國遺事』의 刊行時期에 대한 고찰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趙鍾業本의 書誌學的 內容을 개괄하고자 한다. 趙鍾業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장에서는 현존하는 여러 木板本과

-
- 6) 蔡尙植, 1986, 「至元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91, 『高麗後期佛教史研究』, 一志社, 177-180쪽.
 - 7) 金相鉉, 1985, 「三國遺事 王曆篇 檢討-王曆 撰者에 대한 疑問」, 『東洋學』, 15, 檀國大.
 - 8) 李根直, 1997. 2, 「《三國遺事》 避諱例 研究」, 『慶山文化研究』, 1, 慶山大學校 慶山文化研究所.
 - 9) 李根直, 1996, 「三國遺事 王曆의 編纂時期」, 『전국역사학대회발표문』; 1998. 6,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성격과 시기」, 『韓國史研究』, 101, 한국사연구회.
 - 10) 河廷龍, 1995.11, 「『三國遺事』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條 譯註」, 『普照思想』, 9, 普照思想研究院.
 - 11) 河廷龍, 1996.12, 「『三國遺事』 校勘에 對한 書誌學的 考察」, 『韓國傳統文化研究』, 11,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韓國傳統文化研究所.
 - 12) 河廷龍, 1997.2, 「『三國遺事』 「神呪第六」 校勘 研究」, 『國學論叢』, 2, 慶山大學校 國學研究院.
 - 13) 河廷龍·李根直, 1997.10, 『三國遺事 校勘 研究』, 新書苑.
 - 14) 河廷龍, 1997.12, 「『三國遺事』의 校勘과 색인」, 『韓國傳統文化研究』, 12,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韓國傳統文化研究所; 河廷龍, 1998.9, 「삼국유사 일자색인」, 민속원.
 - 15) 河廷龍, 1998.6, 「『三國遺事』 古板本の 書誌學的 考察 - 鶴山李仁榮舊藏古板本과 그 筆寫本の 校勘을 中心으로 -」, 『白山學報』, 50, 白山學會.

의 對校와 校勘을 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趙鍾業本の 古板本 가운데 先刷本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으로 古板本の 善本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校勘의 결과를 가지고서 古板本の 版次 즉 古板本과 壬申本の 舊刻本の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古板本の 刊行時期와 初刊本과의 관계 즉, 高麗末期 初刊本の 존재여부에 대해서 고찰해 나가면서 『三國遺事』의 刊行에 대한 原典的인 논의를 진행시켜보고자 한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研究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 『三國遺事』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즉 그 編纂過程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모색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특히 高麗時代 『三國遺事』의 初刊本の 존재 여부는 그 자체로 諸篇目的 編纂過程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I. 趙鍾業本の 내용

다음은 문화일보 1992년 7월 7일자에 실린 金相鉉의 趙鍾業本에 대한 기술의 일부분이다.¹⁶⁾

“……이같은 상황에서 충남대 한문학과 趙鍾業 교수가 공개한 『三國遺事』 권2는 鮮初本으로 三國遺事 板本研究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壬申本은 舊刻板과 改刻板이 뒤섞여 있고, 改刻板도 여러곳에서 나누어 새긴 까닭에 版式이 일정치 못하다. 이에 대해 趙鍾業本은 일정한 版式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본을 다른 여러 본과 비교하여 글자의 이동을 살펴본 결과, 朝鮮初期本인 泥山本과는 같은데, 여러 壬申本과는 다른 글자가 60여자나 있었다.¹⁷⁾ 趙鍾業本에서의 「太」자가 여러 壬申本에는 「大」자로 바뀐 것이 30여자나 되었다.¹⁸⁾ 이처럼 版式과 글자의 異同 등으로 볼 때, 趙鍾業本이 壬申本 이전의 古板本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본이 朝鮮初期本이라는 사실은 避諱代字의 용례로 알 수 있다. 趙鍾業本에는 高麗 惠宗의 諱인

16) 金相鉉, 「(해설)古代문화 이해에 새地平 - 趙鍾業교수 「三國遺事古板本」 공개 배경과 가치», 『문화일보』(1992년 7월 7일자)

17) 이에 대해서는 이미 南權熙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다.(南權熙, 1990, 「泥山本 『三國遺事』의 書誌的 考察」, 『書誌學研究』 5·6, 書誌學會.)

18) 필자가 原本을 살펴본 결과, 趙鍾業本에 나타난 「太」字의 대부분이 加筆字이다. 뿐만 아니라 諸板本에 대한 對校의 결과, 古板本の 「太」가 壬申本에서는 「大」가 대별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그러므로 古板本の 太가 壬申本에 와서 大로 缺割된 것이라는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편 고전적 특히 『三國遺事』에 있어서 大와 太는 상통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에 따른 의미상의 차이는 보여지지 않는다.

「武」자를 「虎」자로 바꾸어 쓴 경우와 그대로 쓴 예가 있다. 이는 이 본이 朝鮮時代에 이루어진 사실을 반영하는데 高麗時代의 板本에는 避諱代字의 원칙이 일관성있게 지켜진 까닭이다.¹⁹⁾ 趙鍾業本을 같은 鮮初本인 泥山本과 비교해 보면, 泥山本에 더 많은 失割이 나타난다. 간단한 조사로도 10여자 이상이 보인다. 趙鍾業本이 泥山本보다 먼저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보이는 바, 趙鍾業本은 현재 忠南大學校 漢文學科 趙鍾業 名譽教授가 소장하고 있던 도서의 기증으로 만들어진 忠南大學校 中央圖書館 鶴山文庫에 수장되어 있다. 이 板本은 권2만 남아 있는 零本으로, 版式이 일정치 못한 壬申本에 비해 일정한 板式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글자의 異同에 있어 古板本인 南權熙紹介古板本²⁰⁾(이하 南權熙本)과 비슷하며 여타 壬申本과는 다른 글자가 적지 않다.²¹⁾ 또한 이 본은 古板本인 南權熙本보다 失割이 적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본은 南權熙本보다 먼저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研究는 아직까지 없는 형편이다.²²⁾

필자가 고찰해 본 결과, 자체가 고르며 자양이나 도각이 선명한 점으로 보아 覆刻本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²³⁾ 版式에 있어서는 여느 木板本과 비슷하게 四周雙

19) 이 같은 견해는 高麗 王諱의 缺割에 있어서 武·斌은 글자는 缺割하였으나 曉는 완전한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朝鮮時代의 판각인 듯하다는 견해(千惠鳳, 1981, 「麗板本 東人之四六에 대하여」, 『大東文化研究』 14,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 千惠鳳, 1982, 「새로 발견된 古板本 三國史記에 대하여」, 『大東文化研究』 15,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137쪽.)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高麗朝의 긴 시간 가운데 避諱法은 많은 변천을 가졌으며 그 避諱法의 방법도 여러 가지였음이 확인된 바 있다.(鄭求福, 1994, 「高麗朝의 避諱法에 관한 研究」,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 국사학논총』(상), 일조각.) 뿐만아니라, 高麗後期에 들어와서 刊行된 각종 文獻에서 高麗王에 대한 避諱法이 일관성있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한학자들사이에서는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避諱法만으로는 해당 板本이 麗末本인지 朝鮮時代의 板本인지 구분할 수 없다.(河廷龍, 1996, 앞의 글, 272쪽)

20) 南權熙는 泥山本으로 명명한 바 있으나(南權熙, 1990, 앞의 글.) 대개의 명명의 경우 소장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南權熙本의 경우 소장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시방편으로 南權熙의 소개로 그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된 바 전고(河廷龍, 1996, 앞의 글.)에서 南權熙紹介古板本으로 명명한 바 있다.

21) 이에 대해서는 南權熙의 앞의 글 227-233쪽에 상세하므로 본고에서는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22) 필자는 金相鉉으로부터 趙鍾業本의 複寫本을 얻었다. 그러나 校勘을 위해서는 原本의 확인이 불가피했으며 특히 판심 및 변란의 크기 등에 대한 書誌學的 검토를 위해서 더욱 그러했다. 이후 충남대학교 학산문고를 찾아 소장자의 협조로 귀중한 板本을 직접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면에 소개된지 6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이 자료에 대한 研究를 약속드린 바 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邊으로 半郭은 24×17Cm(세로×가로)이며²⁴⁾, 半葉은 10行21字로 注는 雙行이다. 半葉에 있는 有界를 통해서 高麗時代의 板本은 아닌듯하며 1512년에 刊行된 소위 壬申本보다는 오래된 板式을 보이고 있는 바, 1394년에 刊行된 古板本으로 보여진다. 한편 좌우측 상하단 각 모퉁이의 글자들은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이의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곳도 더러 있다.

특별한 인장은 찍힌 곳이 없고 다만 책표지 다음 장에 “三國遺事三卷內茅三卷闕失是存二卷”과 “寧越後人嚴家莊”이라고 筆寫한 부분이 확인된다. 이는 “『三國遺事』 3권(卷第三)이 함께 묶여 있었지만 3권(卷第三)은 없어지고 이렇게 2권(卷第二)만 잔존하게 되었다”와 “寧越의 後人 嚴家에서 수장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板本은 원래 2권과 3권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가 3권을 잃어버리고 다만 2권만이 보존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본이 강원도 영월 엄씨 가문에서 보관되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후면 표지의 안쪽에 “洛城金柱成元集覽比”라는 後記가 적혀 있다. 이는 “낙성 김주성이란 사람이 원래 모은 것으로 보고 비교한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어찌면 趙鍾業本에 散見되는 加筆字의 주인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소장으로서 권2만 남아 있는 零本 1책으로 1990년에 학계에 알려졌던 南權熙本이 제17~20葉이 落張된 데 반해 趙鍾業本은 제9葉(121·122)과²⁵⁾ 함께 맨 뒷장인 49後葉(202)이 缺落되어 있어 상호 缺落 부분을 보충해주는 유일한 古板本 자료들로서 가치가 있다.

이제 卷第二의 校勘에 앞서 보기로 다음과 같이 第一葉을 書誌學的으로 고찰하여 필요부분에 각주를 달아 다음 장 즉 卷第二 校勘의 범례로 삼고자 한다.

[卷2-1前·後葉]105·106面은 半郭의 크기가 約17×24Cm(가로×세로)이며 皇明正德壬申刊本 또는 寧宗壬申刊本(이하 壬申本)은 17×23으로 改刻된 부분으로 보인다. 그 차별적 특징으로는 靑紙의 굴곡이 같지 않으며, 자양과 도각의 모습이

23) 柳鐸一은 高麗時代 刊行된 初刊本을 상정한 가운데 鮮初本인 古板本을 改刻本이라 한 바 있다. 初刊의 여부는 다음에서 상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柳鐸一도 鮮初本인 古板本이 覆刻本이 아니라는 데는 필자의 같은 의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柳鐸一, 1983, 「三國遺事의 文獻變化 樣相과 變因」, 『三國遺事研究』,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4) 참고적으로 鶴山李仁榮舊藏古板本(이하 이인영본)의 경우 匡郭은 卷三의 第七葉은 邊欄(또는 雙欄)의 길이가 24.7cm이며 한쪽의 상란의 넓이는 18.0cm이다. 卷四의 第一葉은 길이가 25.0cm이며 넓이가 18.2cm이다. 卷五의 第一葉은 길이가 24.7cm이며 넓이는 18.0cm이다. 판심의 어미 상하의 版口는 黑口이다.(李仁榮, 1968, 『淸芬室書目』, 寶蓮閣, 2~3쪽)

25) 해당 缺落 부분 전체가 加筆되어 補入되어 있다.

다르며, 판심가운데 어미의 모양이 다르며, 글자의 크기가 다른 점등을 들 수 있다. 前葉에서는 09:21²⁶⁾, 10:10-12, 10:20-21 등이 破欠되어 있다. 後葉에서는 01:19-21, 02:20-21 등이 破欠되어 있다. 즉 前葉과 後葉의 판심부분이 오랜 時期가 흐름에 따라 마모된 것으로 보인다.²⁷⁾

이상과 같이 趙鍾業本의 書誌學的 내용을 일별해 보았다. 요약하면 趙鍾業本은 朝鮮初期에 刊行된 古板本으로서 覆刻本이 아니며,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특히 卷第二의 내용을 전하는 南權熙本의 缺落 부분을 상호보충해 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II. 「卷第二」의 校勘

校勘學은 文獻의 轉寫가 착오를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文獻이 오래된 것일수록 轉寫의 횟수는 더 많아지고, 착오의 기회 역시 더욱 많아진다. 校勘學의 임무는 이러한 轉寫의 착오를 바로 잡아 한 文獻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 건, 原本과의 차이를 최소로 적게 만드는 것이다. 校勘學의 작업에는 3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착오를 발견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것을 고치는 것, 셋째는 그 고친 것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校勘學에는 한가지 정해진 규칙이 있다. 이는 곧 아래와 같이, 후대인의 수정에 대한 경고를 말한다. 한 時代에는 한 時代의 언어와 관습이 있으므로 사건과 천박한 지식을 빙자하여 고서를 멋대로 해석하거나 개작해서는 안된다. 校勘學의 가장 믿을 만한 근거는 모두 최고저본에 있으며, 무릇 板本이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은 가장 淵博한 역사 지식이 있어야 그 그 해결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다.²⁸⁾ 그러므로 본고는 오로지 최고 善本이라 할 수 있는 古板本에 근거하여 校勘에 임하고자 한다.

다만 趙鍾業本은 南權熙本과 중복된 부분이 많은 바 본장의 校勘은 南權熙本과 차이가 나는 부분만을 校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본장에서 기재하지 않는 바는 南權熙本에 대한 研究成果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이제 卷第二에 대한 校勘을 진행하고자 한다.

26) 이는 行字數를 표기한 것으로 9행 21번째 자를 말한다.

27) 이하 파흠부분에 대해서는 時期가 지남에 따라 마모된 이유 이외에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近間 影印된 『三國遺事對校資料集』을 참고하기 바란다.

28) 胡適 原著, 李成珪 譯註, 1977.12. 「校勘學方法論」, 『民族文化』 3, 民族文化推進會.

1)〔卷2-1前葉〕105:03:13²⁹⁾(文虎王法敏條) - 趙鍾業本은 ‘中’이나 南權熙本은 그 굵기가 약간 가늘며³⁰⁾ 부분적으로 缺劃(또는 壞字)되었다.³¹⁾ 卷第二 전체를 통해서 南權熙本은 趙鍾業本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당수의 缺劃字를 보이고 있는 바 南權熙本이 趙鍾業本 이후에 인쇄된 後刷本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卷2-1後葉〕106:06:09-10(文虎王法敏條) - 古板本 즉 趙鍾業本과 南權熙本 모두 俘于이며 壬申本은 浮干이다. 이는 “獻俘于帝”의 일부분으로 “포로를 황제에게 바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는 壬申本이 誤字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干’의 경우는 ‘干’의 異體字로도 사용된 바 있으므로 참고가 된다.³²⁾

3)〔卷2-1後葉〕106:06:18(文虎王法敏條) - 古板本과 서울大奎章閣所藏壬申本(이하 서울大本)은 二이며 天理大所藏壬申加筆本(이하 天理大本)은 加筆字인 二이다. 그러나 高麗大晚松文庫所藏壬申本(이하 晚松文庫本)과 日本의 名古屋市蓬左文庫所藏壬申本(이하 蓬左文庫本)은 一로 壞字되어 있다. 缺劃으로 인한 壬申本의 誤字라 할 수 있다.³³⁾

4)〔卷2-1後葉〕106:10:18(文虎王法敏條) - 古板本과 서울大本은 冪이며 天理大本은 加筆字이다.³⁴⁾ 그러나 晚松文庫本과 蓬左文庫本은 약간 壞字되어 있다. 이 역

29) 〔卷2-1前葉〕105:03:13'는 곧 〔卷第二의 첫 번째장의 앞부분 반엽〕을 말하며, 105쪽 세 번째줄 열세번째 자임을 말한다. 대부분의 영인본과 필자가 발간한 바 『三國遺事校勘研究』에는 각 쪽수가 적혀 있는 바로 편의상 위와 같이 쪽수와 행수 그리고 자수를 병기했음을 밝힌다.

30) 본고에서는 인쇄 및 복사상태의 차이를 감안하여 글자의 미세한 굵기 차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고자 한다.

31) 대부분의 缺劃 및 壞字부분을 통한 분석을 통해 趙鍾業本이 南權熙本에 선행하는 板本임이 쉽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편의상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缺劃 등으로 인하여 판독을 달리할 수 있는 자가 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기하고자 한다.

32) 異體字의 고찰에 있어서는 다음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諸橋轍次, 1955,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劉復, 1976, 『宋元以來俗字譜』, 亞細亞文化社·秦公, 1985, 『碑別字新編』, 文物出版社·金榮華, 1986, 『韓國俗字譜』, 亞細亞文化社·劉球, 1987, 『隸韻』, 中華書局·국립국어연구원, 1991, 『우리 나라 한자의 약체 조사』·국립국어연구원, 1992, 『동양 삼국의 약체자 비교 연구』·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1993, 『漢語大辭典』, 漢語大詞典出版社·국립국어연구원, 1993, 『한자 약체 조사 연구』·국립국어연구원, 1994, 『한자 약체 사용 실태 조사』·국립국어연구원, 1996, 『한자의 자형 조사(1)』·국립국어연구원, 1997, 『한자의 자형조사(2)』·고려대장경연구소, 1997, 『高麗大藏經異體字典』.

33) 이하 부분에 있어 趙鍾業本과 南權熙本의 對校가 아닌 壬申本의 對校에 있어서는 『三國遺事校勘研究』를 참고하기 바란다.

34) 전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河廷龍, 1996), 天理大本은 壬申本 가운데 後刷本에 해당하며 게다가 加筆本인 까닭에 정확한 판차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저본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진다. 그러므로 107면 이하부분에서는 편의상 天理大本의 加筆字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고자 한다.

시 後刷로 인한 壞字로 보인다. 35)

5)〔卷2-4前葉〕111:10:01(文虎王法傲條) - 趙鍾業本과 諸板本은 ㄷ이며 南權熙本은 缺割되어 판독이 달리 될 수 있는 ㄷ이다. 이 역시 南權熙本이 趙鍾業本보다 後刷本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6)〔卷2-8前葉〕119:05:05(孝昭王代 竹旨郎條) - 鄉歌인 慕竹旨郎歌의 일부분으로 諸板本은 맨마지막에 下是로 끝난다. 다만 趙鍾業本만은 그 뒤에 行을 삽입하고 있으나 原本의 확인을 통해서 趙鍾業本의 加筆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加筆字가 무엇을 畵本으로 추가된 것인가의 여부인데 아마도 加筆者의 恣意的인 판단인 듯 싶다. 특히 鄉歌에서 行은 '녀다' 또는 '니다' 즉 가다의 의미로서 齊나 乎가 그 뒤에 따르는 형식을 띤다. 그러므로 趙鍾業本에서 加筆한 行은 鄉歌를 해독하지 못하는 加筆者가 恣意的으로 補入한 것으로 판단된다. 36)

7)〔卷2-8前葉〕119:06:04-05(聖德王條) - 제목에 해당하는 聖德王 다음에 新羅가 趙鍾業本에는 加筆되어 있다. 이 역시 趙鍾業本에 散見되는 加筆字와 마찬가지로 加筆者가 恣意的으로 補入한 것으로 판단된다.

8)〔卷2-8前葉〕119:09:17(聖德王條) - 南權熙本을 비롯한 諸板本은 공격으로 되어 있으나 趙鍾業本은 "王爲太宗大王"의 앞의 空隔에 德을 加筆字로 補入하고 있다. 이는 "왕이 太宗大王을 위하여"로 해석되는 부분으로 여기서 왕은 聖德王을 뜻하므로 굳이 '德'만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이 역시 加筆者가 恣意的으로 補入한 것으로 판단된다.

9)〔卷2-9前葉〕121:01:01(水路夫人條) - 南權熙本을 비롯한 諸板本은 공격으로 되어 있으나 趙鍾業本은 加筆字인 則을 補入하고 있다. 이는 "以杖打岸(則)可見夫人矣"의 일부분으로 "지팡이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로 해석된다. 이 역시 加筆者의 恣意的인 판단으로 여겨지며 특히 이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崔南善, 李丙巖, 이상호, 三品彰英 등도 37) 같은 판단에서 '則'을 補入하고 있다.

10)〔卷2-9前葉〕121:09:04-05(孝成王條) - 趙鍾業本은 〔卷2-8前葉〕119:06:04-05(聖德王條)와 마찬가지로 제목에 해당하는 孝成王 다음에 新羅가 加筆되어 있다. 이 역시 趙鍾業本에 散見되는 加筆者와 마찬가지로 加筆字가 恣意的으로 補入한 것으로 판단된다.

11)〔卷2-9前葉〕121:10:15(孝成王條) - 趙鍾業本은 火이나 南權熙本을 비롯한

35) 壞字 및 缺割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晚松文庫本과 蓬左文庫本이 壬申本 가운데 비교적 後刷本임이 확인되는 바 107면이하에서는 두 板本の 壞字 및 缺割에 대해서는 편의상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36) 鄉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양주동, 1965,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홍기문, 1956, 『향가해석』, 과학원·김완진, 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김완진, 1991, 『新羅 鄉歌의 語源的 分析』, 『韓國思想史大系』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유창균, 1994, 『鄉歌批解』, 형설출판사.

37) 崔南善, 1954, 『增補三國遺事』, 民衆書館·李丙巖, 1956, 『譯註并原文 三國遺事』, 東國文化社·이상호 譯, 1960, 『三國遺事』, 고전연구실, 과학원출판사·三品彰英(三國遺事研究會), 1975, 『三國遺事考証』 上, 瑞書房.

諸板本은 大이다. 이는 '毛火郡令毛火村'의 일부분으로 지명을 가리킨다. 火일 가능성이 높으나 趙鍾業本의 加筆이므로 이 역시 筆寫의 誤謬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12)[卷2-12前葉]127:07:05-09(元聖大王條) - 이 역시 제목 다음에 新羅始祖殿 加筆字로 補入되어 있다.

13)[卷2-13後葉]130:01:11(元聖大王條) - 南權熙本을 비롯한 諸板本은 三이나 趙鍾業本은 흐리게 가운데 획이 그어져 있는 圭이다. 加筆로 판단되나 疊刷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卷2-13後葉]130:05:16(元聖大王條) - 南權熙本을 비롯한 諸板本은 二이나 趙鍾業本은 흐리게 가운데 획이 그어져 있는 工이다. 加筆로 판단되나 疊刷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卷2-13後葉]130:10:15(元聖大王條) - 趙鍾業本은 日로서 가운데 획이 반정도 缺割된 상태이다. 그러나 南權熙本은 가운데 획이 완전히 缺割된 日이다. 이 역시 南權熙本이 趙鍾業보다 後刷本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서 가운데 하나이다.

16)[卷2-13後葉]131:08:14(元聖大王條) - 南權熙本을 비롯한 諸板本은 一이나 趙鍾業本은 흐리게 가운데 획이 그어져 있는 十이다. 加筆로 판단되나 疊刷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卷2-14後葉]132:10:01右(早雪條) - 각주가운데 공격에 趙鍾業本은 加筆字인 一을 補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一本(一)作丙寅"의 일부분으로 一이 반드시 補入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불필요한 글자로서 加筆者의 誤謬인 듯 싶다.

18)[卷2-16前葉]135:01:04(神武大王 間長 弓巴條) - 南權熙本을 비롯한 諸板本은 日이며 趙鍾業本과 天理大本은 加筆字인 日이다. 이는 "復命日"의 일부분으로 "다시 명하여 달하기를"의 의미로 '日'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 유부현은 誤字가 된 것을 天理大本에서 加筆하여 정자로 만든 것이라 한 바 있다.³⁸⁾ 그러나 日과 日은 異體字 자주 文獻에 등장하고 있다. 전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반드시 校勘은 板本을 근거로 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확인되지 않은 후에 대해서 후대인이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알지 못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校勘學方法論에 저촉된다.³⁹⁾

19)[卷2-19前葉]141:10:16(眞聖女大王 居施知條) - 이 부분은 南權熙本이 缺落된 부분으로 서울大本은 員이며 기타 壬申本은 貝이다. 그러나 趙鍾業本은 貞의 異體字이다.⁴⁰⁾ 이는 阿湊 良貞의 이름으로 이에 趙鍾業本은 古板本으로서 壬申本의 誤謬를 수정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38) 柳富鉉, 1993.6, 『三國遺事의 校勘學的 研究 -諸板本の 對校를 中心으로-』, 中央大學 校 博士學位論文, 55쪽.

39) 주대박 지음, 정명수·장동우 옮김, 1997, 『훈고학의 이해』, 동과서, 400~401쪽.

40) 眞과 貞의 異體字의 자형이 비슷한 까닭에 매우 어려운 판단이 요구되었으나 (2-20 後)144:04:03左의 貞明元年의 貞과 일치한 용례를 찾아서 貞으로 판독하였다.

20)[卷2-19後葉]142:02:15(眞聖女大王 居隋知條) -이 부분 역시 南權熙本이 缺落된 부분으로 壬申本은 俠이며 趙鍾業本은 泐이다. 이는 '信宿泐旬'의 일부분으로 여러날을 머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열흘간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泐이 맞으므로 壬申本의 誤字라 할 수 있다.

· 21)[卷2-20前葉]143:02:19(眞聖女大王 居隋知條) - 이 부분 역시 南權熙本이 缺落된 부분으로 壬申本은 伏이며 趙鍾業本은 伏이다. 이는 '隱伏而待'의 일부분으로 숨어서 기다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壬申本의 缺割으로 인해 誤字화된 壞字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卷2-20後葉]144:03:21(孝恭王條) -이 부분 역시 南權熙本이 缺落된 부분으로 壬申本은 右이며 趙鍾業本은 古이다. 이는 '古本云'의 일부분으로 '고본에 이르기를'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壬申本의 誤字임을 확인할 수 있다.

23)[卷2-20後葉]144:05:04(孝恭王條) -이 부분 역시 南權熙本이 缺落된 부분으로 壬申本은 再의 가운데 획인 缺割된 글자이나 趙鍾業本은 缺割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4)[卷2-20後葉]144:08:06(景明王條) -이 부분 역시 南權熙本이 缺落된 부분으로 서울大本은 加筆字인 讓이며 기타 壬申本은 壤이다. 그러나 趙鍾業本은 讓의 異體字인 穰이다. 이는 '물리치다'의 의미이므로 壬申本이 誤字임을 알 수 있다.

25)[卷2-32後葉]168:03:19(後百濟甄萱條) - 南權熙本을 비롯한 諸板本은 大이며 趙鍾業本과 天理大本은 加筆字인 太이다. 이는 매우 흔한 加筆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⁴¹⁾

26)[卷2-41前葉]185:09:17(鴛洛國記條) - 南權熙本은 '鏹'이며 趙鍾業本을 비롯한 諸板本은 아래 ㄴ변이 없다. 原本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南權熙本의 ㄴ변이 加筆인 듯 싶다. 한편 이는 異體字로 當代의 用字例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이므로 굳이 加筆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卷第二에 대해서 趙鍾業本과 南權熙本과의 차이점만을 중심으로 校勘에 임하였다. 그 결과 趙鍾業本이 南權熙本보다 善本으로 先刷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南權熙本의 缺落 부분을 매우 잘 보충해 주는 귀중한 자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Ⅲ. 壬申本の 舊刻本 문제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존하는 『三國遺事』 木板本은 두가지 층위가 존재한다. 하

41) 太의 加筆은 이하 몇 개의 용례(172:08:04, 175:09:21)가 더 존재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하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나는 太祖 2년 서기 1392년에 刊行된 바 있는 古板本이며 또 하나는 中宗 7년 서기 1512년에 刊行된 바 있는 壬申本이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에 인용된 李繼福의 跋文에 의한 것이다.

“우리 동방 삼국의 本史와 遺事 두 책은 다른 곳에서는 刊行된 바 없고 다만 본부에서만 刊行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다멸되어 한행에 경우 너댓자만 해독할 수 있었다. …… 改刊하고자 널리 完本을 구했으나 여러해가 지나도 구할 수 없었다. 아마도 세상에 드물게 유포되어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이에 열읍에 分刊하여 本府에 還藏하였다.”

이와 같이, 『三國遺事』는 慶州府에서만 두 번에 걸쳐 刊行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壬申本刊行 당시에 舊刻本이 남아 있었음도 알 수 있다. 까닭에 기존의 연구자들은 壬申本 가운데 舊刻本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였다.⁴²⁾ 필자는 古板本을 OHP필름으로 복사하여 壬申本과 직접 대조하여 49葉(97面)의 板本들을 세세히 살펴본 결과 기존의 견해와⁴³⁾ 거의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壬申本の 重刊時 覆刻된 부분 3~8葉(109~120), 10~18葉(123~140), 28~33葉(159~170), 41葉(185·186), 44葉(191·192)

* 壬申本の 重刊時 改刻된 부분 1~2葉(105~108), 19~27葉(141~158), 34~40葉(171~184), 42~43葉(187~190), 45~49前葉(193~201)

* 古板本の 缺落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 9葉(121·122 : 趙鍾業本 전체가 筆寫된 부분), 49後葉(202)

그러나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필자는 이와 같은 기존의 견해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결론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壬申本에 남아 있는 舊刻本은 실제로 舊刻本이 아니라 古板本の 覆刻本이라는 사실이다. 앞서 인용한 李繼福의 跋文의 跋文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쉽게 설명된다. “완결로 인해서 1행에 겨우 4·5자만을 판독할 수 있다”고 한 점은 舊刻本 가운데 일부만이 사용가능했다는 것이 아니라 舊刻本 자체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壬申本 刊行에 즈음해서 刊行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舊刻本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壬申本 가운데 舊刻板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은 舊刻板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星州牧使 權驥이 구한 서적을 板下本으로 覆刻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

42) 內藤虎次郎, 「叙」, 『京都帝國大學文學部叢書本 景印正徳本 三國遺事』, 1921.

유탁일, 앞의 글.

43) 南權熙, 앞의 글.

다.44) 특히 卷第二에서 趙鍾業本과 南權熙本 두 板本과 壬申本들을 정밀 對校한 결과 舊刻本으로 알려졌던 부분에 같은 行의 같은 字가 미세하게 다른 모습의 자양을 띄고 있음이 발견되기에 더욱 그러하다.45)

이와 같이 古板本과 壬申本의 관계 특히 壬申本의 舊刻本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제시된 바의 견해 즉 壬申本의 舊刻本의 존재 문제는 그것이 舊刻本이 아닌 覆刻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初刊時期의 上下限

앞장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바 壬申本의 舊刻本이 실제로는 古板本이 아닌 古板本の 覆刻本임을 밝혔다. 이러한 필자의 견해는 壬申本 가운데 다양한 板式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다른 면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壬申本 가운데 다양한 판형이 존재하는 것은 적어도 그 종류만큼 다양한 板次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三國遺事』의 壬申本은 크게 두 개의 板式 즉 改刻에 가까운 補刻本과 소위 舊刻本으로 대별되므로 그 板次도 古板本과 壬申本의 두가지가 존재함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연구성과가 주목된다. 바로 『三國史記』에 관한 견해로서 古板本외에 麗末本의 존재를 상정한 그것을 말한다.46) 비록 그것의 刊行時期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47) 高麗時代 刊本의 존재여부를 떠나서 다양한 板式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三國史記』의 版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典籍의 木板本이 있고 그것의 古板本가운데 그보다 오래된 형식의 古板本の 板式이 발견된다면 그 전적은 적어도 세 개 이상의 板層을 상정할

44) 중간본 가운데 어떤 책을 해책하여 한 장 한 장 목판에 뒤집어 붙이고 그대로 다시 새겨낸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覆刻本이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覆刻本의 감정을 위해서 면밀히 관찰하면 刀刻의 흔적, 글자체의 均整度, 版式上의 여러형태 등 미세한 차이가 발견된다. (千惠鳳, 1997, 개정판 『韓國 書誌學』, 민음사, 151~152쪽.)

45) 필자와 같은 입장에 설 때, 覆刻한 부분과 改刻한 부분이 각각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列畧에서 分刊했다는 跋文의 내용에 그 해답의 단서가 있지 않나 싶다.

46) 千惠鳳, 1982, 앞의 글.

47) 田中俊明, 1982, 「『三國史記』板刻考·再再論」, 『韓國文化』38 및 「誠巖古書博物館所藏『三國史記』について」, 『韓國文化』29.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三國遺事』에 적용해 보면 ‘壬申本 가운데 古板本이 있는가?’라는 첫 번째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앞장에서 설명한 바, 壬申本 가운데 소위 舊刻本 즉 古板本の 覆刻本이 존재하므로 ‘예’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古板本 가운데 보다 오래된 古板本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고판본 자체 비교를 통해서 그 해답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三國遺事』 卷第二 부분에 해당하는 趙鍾業本과 南權熙本이라는 두 개의 古板本이 존재하기에 그 해답도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卷第二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筆寫本 이외의 木板本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까닭에 古板本 가운데 보다 오래된 古板本을 찾는 작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그러나 卷第二 부분에 있어서는 각 판본의 내적 비교와 함께 나아가 趙鍾業本과 南權熙本の 비교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두 板本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해답은 ‘아니오’가 된다. 확인되는 바와 같이, 두 개의 古板本 즉 鮮初本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그보다 오래된 板式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麗末本이 될 것이다. 그러나 麗末本이라 여겨지는 부분은 확인이 안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입장에서 설 때, 高麗時代 末期에 刊行된 初刊本이 과연 존재했을 까라는 高麗末期의 初刊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만약 앞의 추정이 맞다면 『三國遺事』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 즉 高麗時代 編纂된 책이 朝鮮時代 初刊될 때의 문제점 예를 들어 古朝鮮의 ‘古’字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三國遺事』의 전체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추정은 板本에서 비롯된 견해에 불과하다. 까닭에 필자는 근래 初刊에 대한 연구사검토를 통해 위의 문제의식을 재차 검증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普覺國尊碑文에⁴⁸⁾ 열거된 一然의 저서 가운데 『三國遺事』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비문을 지은 閔漬가 無極이 지은 바 一然의 행장의 내용이 비문에 보이고 있는 사실과 함께 閔漬의 사관이 유교사관과는 다른 전통적이고 불교적인 경향이 강했다는 견해를⁴⁹⁾ 고려해 볼 때 비문에 『三國遺事』가 열거되지 않은 것은 『三國遺事』가 一然의 생전에는 刊行되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⁵⁰⁾

48) 河廷龍, 1996. 8, 「普覺國師碑銘」, 『보각국사 일연성사와 은해사』, 銀海寺 一然學研究 院.

49) 金相鉉, 1985, 「高麗後期の 歴史認識」, 『韓國史學史의 研究』, 乙酉文化社, 75쪽.

50) 金相鉉, 1987, 「三國遺事의 書誌學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

그러므로 『三國遺事』는 未刊行되다가 一然 사후에 제자 無極에 의해 初刊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찍부터 제시된 바 있으며, 51) 無極이 『三國遺事』를 검토하여 刊行한 時期는 52) 一然이 入寂한 지 20년 정도가 지난 1308년 경으로부터 無極이 入寂하는 1322년 사이에 해당하며 대략 1310년대라 할 수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時期設定이 개진된 바 있다. 53)

그러나 그 어디에도 無極이 初刊했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 54) 다시 말해서, 실제로 왜 『三國遺事』가 無極이 入寂하기 전에 編纂이 아닌 刊行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즉, 一然의 사후에 初刊되었다면 하필 初刊의 下限時期가 無極의 入寂時期와 일치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찾아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사 一然의 사후 無極이 『三國遺事』의 찬술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無極의 생전에 『三國遺事』가 刊行되었다고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앞에서 밝혀진 것은 初刊의 時期에 대해서 一然의 사후(1289)라는 上限時期만 결정된 것이지 下限時期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증거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그 下限時期를 찾으려면 太祖 2년 1394년에 刊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三國遺事』 古板本の 刊行年度를 상정해야 될 것이다.

결국 상하한 도합 105년에 걸친 初刊의 時期에 대한 상정이 가능하며 그 사이에 『三國遺事』의 원고본은 筆寫本의 형태로 傳存되다가 1394년에 初刊되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古板本이 刊行된 후 소위 壬申本(1512)이 刊行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118년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보다 짧은 時期에 初刊本이 刊行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만약 기존의 견해대로 1308년에서 1322년 사이에 初刊되었다면 初刊의 時期와 古板本の 刊行된 時期의 간격은 겨우 최장 84년에서 최단 70년이 된다. 이는 고판

研究院, 35쪽.

51) 高橋亨, 1955, 「三國遺事の註 및 檀君傳説의 發展」, 『朝鮮學報』 7, 66~67쪽.

52) 柳鐸一은 一然이 卷子本이나 折帖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자 無極이 一然의 鑿碑가 끝난 1295년에서 入寂한 1322년 사이에 등재본을 만들어 初刊이 이루어졌으며, 『三國史記』가 중간될 즈음(1394)에 『三國遺事』가 중간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板本이 아닌 跋文에 대한 확대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셈이다. (柳鐸一, 앞의 글, 270쪽.)

53) 여기서 1310년대 初刊說(金相鉉, 1987, 위의 글, 36~42쪽.)은 蛇足이라 여겨진다. 위의 견해대로 라면 1308년일 수도 있고 1322년일 수도 있는 문제에서 무리하게 時期를 좁힐 이유는 없다.

54) 高麗末期에 찬술된 『三國遺事』에 高麗王에 대한 避諱例가 보인다. 이는 대개 초고본 또는 筆寫本에 있는 것을 그대로 轉寫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刊行이 안된 筆寫本에 과연 避諱가 되어 있었겠냐는 문제제기도 가능하지만 避諱의 時期를 編纂이 아닌 刊行으로 한정지을만한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

본과 임신본의 간행기간인 118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時期에 해당한다. 만약 기존의 견해대로 高麗末期 初刊本이 있었고 불과 100년도 안된 짧은 時期에 중간되었다면 중간된 鮮初本에 麗末本の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지 필자 역시 궁금하다. 다시 말해서 중간될 당시 사용가능한 初刊本을 사용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 補刻이 이뤄졌을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인데도 불구하고 鮮初本에는 麗末本の 覆刻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三國遺事』의 경우 『三國史記』와는 달리 현재의 板本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高麗時代에 刊行된 初刊本은 없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맺음말

여기서는 본고의 몇가지 검증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결론과 관련지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의 전체내용은 趙鍾業本에 대한 書誌學的 고찰로 일관된다. 그러한 書誌學的 조사의 결과로서, 趙鍾業本이 현존 최고의 『三國遺事』 板本이며 缺落 부분에 한해서는 역시 缺落 부분이 존재하는 南權熙本과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강함을 밝혔다. 그러한 상호보완을 통해 필자는 卷第二 부분에 대한 校勘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존의 견해와는 매우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즉 기왕에 壬申本の 舊刻本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古板本の 覆刻本이라는 견해이다. 여기에 진일보하여 一然 사후 불과 100여년만에 刊行된 것으로 보이는 鮮初本인 趙鍾業本에 麗末本の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을 확대해석하여 鮮初本이 최고본이자 初刊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까지 조심스럽게 제시하였다.

만약 위의 견해가 맞다면 해명해야 할 부분이 몇가지 있다. 첫째, 初刊이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둘째, 初刊 될 때까지의 『三國遺事』의 형태는 어떠한가? 셋째, 朝鮮初期 初刊될 무렵 내용의 변화가 있었는가? 넷째, 「王曆第一」은 어느 時期에 왜 합철되었는가? 등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필자는 다만 朝鮮初期 初刊될 무렵까지 『三國遺事』는 筆寫本の 형식으로 流轉되었을 것으로 짐작외에 다른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역시 검증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지만, 『三國遺事』의 目次가 없는 점, 「王曆第一」과 諸篇과의 차이점, 「卷第五」에만 一然撰이 부기되어 있는 점, 篇目 구성에 있어 그 체제의 문제 등에 대한 해법도 이러한 추정으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누차 강조했던 바, 文獻이 오래된 것일수록 轉寫의 횟수는 더 많아지고, 착오의 기회 역시 더욱 많아진다. 특히 등재본이 寫本일 경우 그것은 筆寫한 것이기에 筆寫者의 심리적 誤寫가 있게 마련이다.⁵⁵⁾ 그러므로 筆寫本의 상태로 유전되오던 『三國遺事』가 『三國史記』에 비해서 誤脫字를 비롯한 文獻的 變用이 보다 많은 것도 『三國遺事』의 初刊時期가 비교적 늦은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끝으로 부족하나마 趙鍾業本은 『三國遺事』의 最高本이자 初刊本일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향후 설령 고려시대 初刊本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판본적 상황에서 『三國遺事』의 高麗時代 初刊說은 선협적인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55) 柳鐸一, 1972, 「寫本의 性質」, 『曉原』 16, 부산대학교 학생회.